

“학력부진 걱정마세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책임지도제 실시

광주시교육청은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기초학력이 뒤진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도하기 위하여 14억 1,900만원의 강사비를 지원한다. 각 학교 교감 및 담임교사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지도제를 실시한다. 책임지도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

까지 읽기와 쓰기, 셈하기 능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해당되고, 이들을 맡을 지도교사는 각 학교 교감 및 담임교사들이 담당하며, 학습결손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지도하게 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도를 책임질 교감과 담임교사 104명은 타

학교 교원들과 26개의 상호 컨설팅 팀을 조직한다. 교사들은 모두 291회의 컨설팅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찾아내고, 정보를 공유하여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지도에 활용할 방침이며, 부진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한 지도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1,075편의

초·중·고등학교 부진학습지도용 보정지도자료를 개발하여 특별보충 지도에 투입했으며, 퇴직교원들의 노련한 학습지도 노하우를 심본 활용한 급빛봉사단을 운영하여 학습부진의 원인을 찾고 맞춤형 지도를 통해 기초학습부진학생 Zero화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조민철 기자 jmc@eduyonhap.com

“해외인터십, 이렇게 좋을수가”

충남 전문계고, 운영 1년만에 지원자 몰려

“‘해외 인터십’ 가려고 전문계고등학교에 입학 했어요” 충남도가 보내 19개 전문계고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문계고 해외 인터십제도’가 큰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해외인터십에 필수적인 영어교육을 위해 2008년 도에서 기획, 일선 시·군과 교육청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서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한 유동층이 줄어들고 전문계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실제로 2010년 신입생 전형결과 지원자가 급증해 탈락학생이 290명이나 되었다.”고 전했다. 합덕제철고등학교 최성창(55)교장은 “내년도 신입생 중에 경기도 모 중학교 전체 1등 학생이 지원했으며 경쟁률도 4.3:1을 기록했다”며 놀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은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알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며 “해외취업이란 목표를 꼭 이루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도장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상업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해외인터십반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어민영여교사 인기, 영어열기 뜨거워
“해외 취업”이라는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고, 원어민영어교사를 배치하자 영어에 관심이 보이면서 스스로 영어공부에 열중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도내 전문계고 전체에 공부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성적 우수학생 전문계고에 몰려
충남도는 11월 해외 인터십반에 참가하고 있는 19개 전문계고 학생과 학부모 전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학년생과 내년도 신입생중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거 전문계고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밝혔다.

웅산공업고등학교 동권승(45) 학부모는 “공부를 못해 공업고에 보내놓고 절망했는데, 해외 인터십반에 참가한 이후 영어를 싫어하던 아이가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희망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도장병희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은 “작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호주 인터십’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해외인터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충남조산공업고등학교 1학년 장승일 학생은 “중학교 때는 영어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몰라 집에서 한번도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한편, 학생 설문(272명 응답) 결과 ▲ 79.0%인 215명(보통이상 263명, 96.7%)이 ‘원어민영어교사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 67.3%인 183명(보통이상 258명, 94.9%)은 ‘원어민교사와의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설문(246명 응답)에서는 ▲ 64.2%인 158명(보통이상 218명, 88.7%)이 ‘해외인터십반에 참가한 이후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 80.9%인 199명(보통이상 243명, 98.8%)은 ‘전문계고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 74.8%인 184명(보통이상 224명, 91.1%)은 ‘자녀의 미래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응답했다.



◆ 광주진월초 어린이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장기를 뽐내고 있다.

“엄마 아빠 나 어때요?”

광주 진월초, 솜씨자랑 한미당 열려

광주광역시 진월초등학교(교장 이동희)에서는 지난 12월 4일 본교 대강당에서 ‘제7회 진월가족 한미음축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350여명의 진월초 어린이들이 본교 운영위원회 및 300여명의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아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한데 모아 자신의 재주와 솜씨를 마음껏 발표해 보는 축제의 한미당이였다. 이동희 교장은 축제 인사말에서 “금년에는 신종 플루와 경제위기로 거의 모든 학교가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하였는데, 본교에서는 가을 자연답사 체

합학습, 디지털교과 연구학교 운영, 남구 지구 특색교육 브랜드의 날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틈틈이 공부하면서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자기 재량을 펼쳐 보이는 일곱 번째 맞는 진월가족 한미음 축제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는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는데 연극, 무용, 노래, 악기연주, 국악, 무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로서 진월초 어린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축제에 참여한 학부모에게 웃음과 많은 감동을 줘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손덕원 기자 sdw@eduyonhap.com

광주본초초, 유도부 창단

광주본초초등학교(교장 지용근)가 유도부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훈련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지역 유도계에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본초초는 지난 3일 오후 강당에서 이상태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노창수 교육국장, 시체육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도부 창단식을 갖고 학교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창단된 유도부는 6학년 김준형 군을 비롯한 2명의 선수와 5학년 5명, 4학년 2명 등 모두 9명의 선수를 확보하고 감독에는 조성민 교사가, 코치에는 설명환 교사가 선임돼 앞으로 기초체력 강화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성과물 전시회 열려



◆ 안순일 교육감(왼쪽 일곱 번째)이 이순자 교과교육연구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함께 ‘2009 교과교육연구회 성과물 전시회’에 참석하여 티셔츠를 케팅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한 교과교육연구회 성과물 전시회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교육과 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초·중등교사들로 구성된 32개 교과교육연구회원이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와 우수연구 결과물이 전시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수

원성 축조에 사용되었다는 거중기가 단연 돋보였는데, 이 거중기는 송의중학교(교장 김덕용) 과학교과연구회 ‘미래네(회장 전기철)’가 전통과학 구현의 일환으로 만들어 교육과학연구원에 기증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전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전시회를 찾은 학생들은 220여

년 전 수월성을 축조당시 이 거중기를 사용하여 1만 2천근(7,200kg)이나 나가는 돌을 30명의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전통과학의 우수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김순기 기자 ksk@eduyonhap.com

新나는 대한민국!

21세기 관광선진국을 실현하는 일,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관광의 우수성 해외시장 개척
- 국제관광기구 참가 활동 및 국제교류 촉진
- 국제관광의 질적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우리 관광의 대외 홍보 강화
- 관광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지원
- 관광의 질적 향상 및 안전·수위관리 강화
- 관광인력양성 강화

www.kta.go.kr

한국관광공사